

나주 혁신도시 입주기업 1년 새 137곳 늘었다

지난해 말 누적 447개사 입주...10개 혁신도시 중 최다 증가 규모 300명 이상 1곳...산학연 유치로 클러스터 형성 힘써야

지난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입주기업이 1년 새 137개 증가하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이 늘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447개 기업의 5곳 중 1곳(21.5%)은 수도권에서 옮겨왔고, 모두 3804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나주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447개사로, 전년보다 137개사(44.2%)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2047개사로, 전년보다 384개사(23.1%) 늘었다. 나주 혁신도시 전국 10곳 가운데 입주기업이 가장 많이 증가하면서 입주기업 수 1위인 경남(509개사)과 격차를 좁혔다.

나주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지난 2016년 18개사, 2017년 86개사, 2018년 173개사, 2019년 278개사, 2020년 310개사, 2021년 447개사 등으로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신규 입주기업이 32개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37개사가 나주에 동지를 틀었다. 최다 입주기업을 지닌 경남은 신규 입주기업이 2019년 264개사, 2020년 57개사, 2021년 18개사로 감소 추세다.

나주 혁신도시 입주기업 447개사의 86.6%인 387개사는 산업 클러스터 용지 안에 사업장을 차렸다. 나머지 60개사는 클러스터 외부에 입주했다. 클러스터 용지 안에 있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의 전국 평균 비율은 76.8%(2047개사 중 1572개사)였다.

경남 509개사 가운데 508개사가 클러스터 안에 입주했고, 제주(157개사), 대구(151개사), 울산(147개사) 등은 100%의 클러스터 입주율을 나타냈다.

나주 혁신도시는 수도권 기업 이전 효과가 상대적으로 뚜렷했다. 입주기업의 5분의 1가량(21.5%)인 96개사는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했다.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입주기업 중 종전 소재지가 수도권인 비율(13.7%)을 웃돌았다.

나주 혁신도시 입주기업 가운데 광주·전남으로부터 온 비율이 41.8%(187개사)로 가장 많았고, 19.7%(88개사)는 광주·전남이 아닌 다른 사·도로부터 왔다. 창업기업 비율은 17.0%(76개사)였는데, 이는 전국 혁신도시 평균(27.4%)을 크게 밑돌았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활동하는 447개 기업은 모두 3804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1곳당 8.5명이 일하고

있는 셈으로, 10개 혁신도시 평균(9.4명)에는 못 미쳤다.

입주기업의 94.6%(423개사)는 종사자 30인 미만 규모였으며, 나머지 23개사는 30~299인, 1곳은 300인 이상 기업으로 나타났다.

고용 규모 300명 이상 기업이 있는 혁신도시는 나주와 부산(3곳), 경남(1곳) 등 3곳에 불과하다. 최근 '혁신도시 성과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낸 김경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학연 추가 유치를 통해 클러스터 형성에 힘써야 한다"며 "개별 공공기관 단위로 지방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성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통한 이전해 클러스터화를 추진해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에너지공단대 윤의준 총장과 금성고 나호연 교장 등이 8일 나주시 빛가람동 대학에서 학습 관련 기술이전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컨텍 제공>

컨텍, 기술이전 1호는 나주 금성고

1호 특허 ALC기술 활용 첨단 인공지능 교실 구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컨텍)가 첫 기술이전 대상으로 나주지역 고등학교를 뽑았다. 에너지공대는 8일 나주시 빛가람동 학교에서 나주 금성고와 제1호 기술이전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금성고는 에너지공대 교육혁신센터 우수 기술을 활용해 첨단 인공지능(AI) 교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윤의준 총장과 나호연 금성고 교장, 나권승 나주시청 교육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성고와 공유하게 될 기술은 김경 교육혁신센터장(에너지공학부장)이 개발한 ALC기술(액티브 러닝 클래스룸)이다.

이는 다양한 학습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침묵하는 과정을 통해 맞춤형 개별 교육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이다.

이 기술은 미국교육공학회(AECT) 최우수 개발상(2021년) 및 최우수 논문상(2022년)을 받았고,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대 제1호 특허로 등록됐다.

김 센터장은 지난 4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육학회 중 하나인 미국교육학회(AERA)로부터 한국인 중 최초로 최우수 젊은 연구자상을 받기도 했다.

에너지공대는 앞으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교육시스템 구축 전문 민간기업들과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나호연 교장은 "선진적 교육체계의 중요성에는 교육관계자들 모두가 공감하지만,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그러한 교육체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행해내기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과 한계점이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한국에너지공대와 협약은 가장 이상적이던 교수-학습방법과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해줄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의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본질적 사명과 혁신 교육체계 실현을 우리 대학 내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내외 교육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선한 조직문화 실천 'TP인플루언서' 6인 선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TP인플루언서' 6명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 주인공은 '1~2급 부문' 김창호 실장, '3~4급' 박수진 부장·박해수 차장, '5~6급' 구아현 대리·윤다인 주임, '공무직·계약직' 김주현 변호사 등 6명이다.

이번 선정은 모든 직원 투표를 통해 결정됐다. 이들은 사학연금이 내건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조직에 바람직한 영향을 줬다고 평가됐다.

핵심가치로는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는 연금전문가' '국민·근로자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판단과 행동' '국민·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도전과 성취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에 앞장' 등이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 "바람직한 행동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의 참여로 선정했다"며 "칭찬과 인정을 조직문화에 전파하려는 취지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번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어촌공사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기상청장상

기상정보 활용부문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상청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식에서 기상청장상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기상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상정보 활용부문 기상청장상 수상기관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은 기상정보를 경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내 기상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공사는 기상정보를 활용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하고 취약지역을 도출해 농

업 분야에 기후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학적인 기초자료를 구축해 기상정보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강수 예·경보 자료를 활용해 저수지 물 부족량을 분석하고 단기 농업기상을 예측하는 농업기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미래 기후변화예상을 활용해 지역별 가뭄·홍수 위험 평가를 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정경훈 공사 미래전략실장은 "농업은 기상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만큼 공사는 앞으로도 고도화되는 기상정보를 농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농업과 기상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KDN, 탄소배출 감축 협력체계 구축

에코-라이프 E-웨이트 협약

한전KDN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한전KDN은 지난 7일 나주 본사에서 한국환경공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E-순환거버넌스와 'KDN 에코-라이프 E-웨이트 자원순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미경 한전KDN ESG경영처장, 김용주 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처장, 조현용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전KDN은 이번 협약에 따라 수명이 다하거나 고장 난 폐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에 인계

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한전KDN으로부터 받은 폐기제품을 활용한 탄소배출 감축 인증과 사회공헌활동 연계 등을 지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폐기 전자제품 수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총괄 운영과 관리를 맡는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지역민 안내와 홍보를 담당한다.

한전KDN은 지난해부터 ESG 환경 브랜드 'KDN 에코-라이프'를 자체적으로 내놓았다.

올해는 '사내 에코-존'을 운영하며 페트병·캔 등을 회수하기 위한 재활용 기계를 도입했다. 한전KDN은 지역 커피 전문점과 연계해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1. 화순, 전원주택 부지, 매매
2. 과수원으로 총 4800평
3. 매매 - 16억 8천만원
4. 문의 . 010 - 3605 - 5000